

## EU, 미국의 농정개혁안 지지

2005년 7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농가 보조에 관해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집행위원회는 부시 대통령이 G8 정상회담 인터뷰에서 밝힌 이러한 발언이 순수하고 장기적인 개혁으로 이어져 2007년 농업법(Farm Bill) 개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인 Mariann Fischer Bo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농가 개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농업법을 논의 대상으로 거론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U는 이러한 개혁을 WTO 협상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미국이 EU의 좋은 선례를 따르기를 희망합니다. 농가보조개혁(farm subsidy reform)은 세계 교역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Boel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U는 농가지원방식을 완전하게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의 지원금은 더 이상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나 교역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보조금은 환경을 보전하고 가축후생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혁신과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지원은 여전히 생산과의 연계성이 강해 교역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 무역협상에서 EU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철폐) 최종 기간에 합의하려면 상대국들, 특히 미국이 수출보조를 폐지하고, ‘식량원조(food aid)’와 같은 애매한 형태로 잉여 생산물을 처분하는 관행을 철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최빈국과의 교역에서 선두에 있어 왔습니다. EU는 개도국들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세계 전역의 50개 최빈국들이 ‘Everything But Arms’<sup>1)</sup>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국들 역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자료: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K R E I

---

1) Everything but Arms 의 약자로서 2001 년 2월 26일 EU 가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일체의 관세와 쿼터를 폐지한 조치를 의미한다. 이 조치를 통해 EU 는 최빈개도국의 대 EU 시장접근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일부 유예를 부과하였던 바나나, 설탕, 쌀도 2009 년까지는 무관세, 무쿼터 수입이 보장될 방침이다 .